

황 교육부장관·전국 시도교육감 27일 첫 면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처리 등 현안 의견 제시될 듯 자사고 지정 취소·지방교육재정 악화도 논의 예상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오는 27일께 취임 후 첫 공식 면담을 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처리,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 등 당면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묘수가 나올지 주목된다.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따르면 황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의 상견례가 오는 27일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교육부가 요청한 만큼 27일이 아닌

더라도 이달 내에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장소는 교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서울 또는 대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측은 장관과 교육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친분을 쌓는 데에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가지만, 교육감 측에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전교조의 미복귀 전임자 처리 문제를 최우선 논의 안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19일까지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11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상태다.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형사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들에게 맡겨달라고 제안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도 현안 중 하나다.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다른 지역은 마무리돼 서울에 한정된 문제이지만 평가 대상 25개교 중 14개교가 서울에 있는 만큼 서울의 비중이 가장 크다.

현재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를 교육감

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규정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재평가 강행 의사를 밝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지방교육재정도 교육감들의 ‘골칫거리’다.

교육감 측은 누리과정, 돌봄교실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을 지방교육 예산으로 추진하다 재정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교육예산을 확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고 정부가 공언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방북 박지원 의원 인터뷰

“北은 대화 원한다”

DJ서거 5주기 조화 전달자리 김양건, 모멘텀 만들려 노력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북한 측의 조화를 전달 받으려 지난 17일 방북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사진) 의원은 18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화 전달 과정에서 북

측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양건 노동당 대남 비서를 만난 결과를 전하면서 “북측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하는 반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북측에서 한미군사훈련, 핵 폐기 요구, 국내 언론의 북한 비난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제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자 함께 갔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특사 같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미훈련 등 북측 강한 불만에 박대통령 입장 강력 전달하자 “특사 같다” 농담 건네기도

을지훈련 후 긍정적 신호 기대 박 정부 결단하면 北 화답할 것

조화를 북한까지 직접 가서 전달받아야 한다는 질문에 박 의원은 “당초 북측에서 조화를 전달하겠다고 해서 김충업 전 의원 등 가족이 방북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북측에서 김양건 비서가 조화를 전달한다면서 제가 오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해 이를 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방북과 관련, 일부 보수집단들이 문제를 삼을 것 같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함께 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5·24 경제 제재나 금강산 관광 등을 박근혜 정부가 결단해 준다면 북한도 좋은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며 “북측이 ‘왜 그렇게 전제조건이 많다, 실현 가능한 것을 지도자가 결단해 달라’고 발언한 것은 이를 내포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제외한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한 질문에는 “을지연습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어떤 긍정적 신호가 (북에서)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DJ 서거 5주년 추모식에 이단 발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년 추모식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 내외빈들이 헌화한 뒤 목욕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한빛원전 안전 ‘협력’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6기 공동 정책인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윤장현 시장과 이낙연 지사의 공동 정책인 한빛원전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선 ‘안전 최우선’ 참여형 원자력 지역 지킴이를 구성하고 원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안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또 원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도 공동 작성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특히 원전 안전협의회 회의결과와 환경감시센터 시료측정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주민 보호대책, 방호물자 등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훈련과 홍보활동도 합동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북도와 함께 오는 10월 현장 적응 소방 합동 훈련도 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는 방사선 실시간 측정결과도 전광판 등에 노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양 시도는 내년부터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지원센터와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으며 보호 대책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

“교황처럼 낮은 곳 살피야”...윤시장, 공직자에 따끔한 일침

간부회의서 권위적 행동 지적 산하기관 ‘자리지킴이’ 비판도

윤장현 광주시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인용해 시청 공직자들의 권위적 행동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윤 시장은 또 민선 5기때 입성한 시 산하 기관 인사들의 ‘자리지킴이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 시장은 1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방한하신 교황의 말씀 가운데 ‘최고의 권위는 섬김이다’라는



윤 시장은 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윤 시장은 “민선 6기가 추구하는 ‘시민중심’ 시

대목이 가슴에 크게 와 닿았다”면서 “많은 시민께서 아직도 공직자들이 너무 권위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민이 있는 곳, 낮은 곳, 현장으로 내려가 진정성있는 맘을 흘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을 함께할 수 있는 인적진용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시 산하 임원들은)민선 6기 철학과 비전에 스스로 자신 있게 동참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시장이 그동안 공·사석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용퇴를 바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종 통보’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원들이 민선 5기 송별회 자리에서 ‘인기를 채우자’는 결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시장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윤 시장은 을지연습 첫날인 이날 조찬장소를 직원과 함께하는 구내식당으로 바꾸도록 하는 등 ‘탈권위’를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6시에 출근한 윤 시장은 실·국장 등과 함께 일반음식점에서 식사할 예정이었으나,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식사장소를 변경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윤 시장은 “간부들이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직원과 시장이 한자리에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땅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금지원
- ☞ 대출한도는 최고 15억
-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 사실명세와 소요자금 명세
- 공사사명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록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 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 2013년 12월 26일 장소 : 남구로예회관



이사장 안두경



전우 하헌준

광주지역 자산 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 원
당기순이익 ⇒ 15억 3천만 원
배당금 ⇒ 5.0%
(전세 장기저금 관리 원 3%)

본점 671-5000
주유사업소 720-2880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